



CP 해외연수 실시 ... 실효성 있는 CP 운용 필요성 절감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자율준수문화 창달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 해외연수는 삼성전자, 삼성증권,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에스오일, SK가스, SK네트웍스, SK에너지, SK주식회사, SK텔레콤, LG

전자, 제일모직, GS건설, GS칼텍스, KTF, 포스코, 하이트맥주, 한솔LCD,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등 회원사 공정거래담당 임직원 24명과 함께 EU 회원국인 벨기에, 이태리, 헝가리 등지에서 실시했습니다.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국내 CP 운용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EU의 CP 내용과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면서 선진국의 CP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해몬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유럽 경쟁법 및 CP'를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EU 역내 기업의 CP 운용 실태와 더불어 CP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EU경쟁당국이나 EU법원에서는 CP 운영기업에 대한 벌금 감액 등과 같은 혜택은 없지만, 경쟁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고액의 벌금 부과 등 경쟁법 집행의 엄격화)로 실효적인 CP 도입으로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토록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을 기준으로 EU에서 부과한 연간 과징금액수가 33억 유로에 이르는 등 EU의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이에 EU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유효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P 내용 및 적용범위를 국내 경쟁법과 자국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EU 역내의 경쟁법과 더불어 지사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정거래 해외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EU 선진국의 CP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과 기억될 것입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53차 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조·건설·수리·용역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본연합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제53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정협의회에서는 ▲ 피신고인의 시공능력 및 매출액이 하도급법 원사업자의 기준에 미달하여 조사를 개시하고 않고 조정을 반려했던 조정불개시 3건 ▲ 조사비용 등의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한 조정불성립 20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 당사자간 합의 및 조정위원들의 의결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조정성립 23건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 당사자간 합의 후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된 신고취하 2건 ▲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해 공정위로 사건을 이첩한 조정불성립 5건 등 총 53건의 상정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 가결했습니다.

'회원 우대 차등화 제도' 10월부터 실시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공정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실무에 필요한 자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회원 우대 차등화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우대 차등화 제도는 본 연합회가 전개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참여 실적 등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혜택을 '차등 제공'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회원서비스 기준을 정립하고, 회원 등급을 분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우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용역서비스** : 회원(사)의 사업 참여 실적 등을 토대로 등급을 분류해 CP 관련 용역서비스(CP 매뉴얼 제작 최대 40%, 리모델링 최대 60%, 운용점검 최대 30% 등)에 할인율을 차등 설정했습니다.
- ◎ **교육서비스** : 회원(사)의 요청에 의해 맞춤교육을 실시할 경우, 등급별로 폭넓은 교육비 할인 혜택(최대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광고 무료 게재 서비스** : 본 연합회 정기간행물인 <경쟁저널>의 지면광고 1회와 더불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1개월간 무료로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포인트 적립 서비스 (추후 예정)** : 회비 납부, 교육 참석, 도서 구입, 홈페이지 활동 등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에 따라 자동 할인 서비스를 2009년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의 다양한 회원 우대 제도는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즉, 본 연합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에게 일정한 기준(연회비 납부 60%, 교육 참석 15%, 용역 서비스 이용 15%, 기타 10%)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등급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점수 크기에 따라 A부터 J까지로 등급화 하고, 각 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 비용에 대해 할인 우대를 받게 됩니다.

회원 우대 차등화 제도는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그 서비스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회원(사)의 혜택 증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 '임직원 워크숍' 실시



본 연합회는 10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강원도 속초 일원에서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 사업 아이템 및 대회원 서비스 아이템 발굴'을 테마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기획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회의 정례화 등을 비롯해 하도급 분쟁조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

료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또,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을 위한 연합회 안내 매뉴얼을 신규 제작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등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가지기하면서도 진득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연합회 임직원들은 설악산을 등에 지고 동해 바다를 앞에 놓은 속초의 가을 안에서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에 집중하며, 내일을 기억할 수 있었던 소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CP등급평가' 자율준수관리자 심층면접평가 실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위탁을 받아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2008 CP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1차 서면평가를 종료한 후,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센터에서 CP등급평가 신청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명 7개조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들과 5분씩 총 40여분에 걸쳐 등급평가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심층면접에서는 53개 피평가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가 전원 참석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한편, 11월 중 평가위원회의 거쳐 3차 방문평가 실시 여부 결정해 통보해드릴 예정이며, 12월 중 CP 등급평가 및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삼성물산과 한서제약이 CP를 도입했으며, SK텔레콤, 현대파워텍, 위아, 다이모스 등 5개 업체가 CP 개정 계약을 본 연합회와 체결했습니다.

'제15회 CP포럼' 개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제15회 CP포럼을 개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0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중 '상습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자와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CP포럼은, 이런 공정위의 일련의 정책 및 집행에 대해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CP 운영고시 및 상습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CP포럼의 주요 주제는 ▲ CP 운영고시 설명 및 토론 ▲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상습 법위반에 관한 제재 방안 ▲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에 관한 제재 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하도급거래정책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강의하게 됩니다.

일상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참석하셔서 향후 공정거래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하반기 '제약업종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2008년 하반기 제약업종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제약업종 공정거래교육은 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따른 교육의무 이수를 지원하고자 '제약업종의 공정거래법상 실무 가이드라인과 제약업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제약업체 공정거래담당 실무자 및 자율준수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제약업과 공정거래정책 - 제약 마케팅(프로모션)과 공정거래 관계와 CP 등급평가 실무 등 2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제약업종 공정거래교육은 CP 도입 기업이 반기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이기 때문에 제약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 www.ktc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11월 27일까지 팩스(02-775-8873)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연합회 소식

2008년 9~10월 기간 중 실시 교육 브리핑

◎ 변호사 특별연수 - 공정거래법 심·판결 사례분석 연수과정 (2008년도 2차)

- 연수 일시: 2008년 9월 29일(월) 9:00~18:30
- 연수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 연수 대상 및 인원: 변호사 50여명
- 연수 과정 구성 및 강사: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판결사례분석-한양대 이호영 교수 / 국제카르텔 심·판결사례분석-중앙대 조성국 교수 / M&A 기업결합 심·판결사례분석-법무법인 대륙 김성묵 변호사 / 부당지원행위 심·판결사례 분석-서강대 홍대식 교수 / 법조인의 윤리-건국대 김영철 교수
- ※ 11월 24일(월)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2008년도 3차 변호사특별연수 실시

◎ 2008년도 3/4분기 하도급특별교육

- 교육 일시: 2008년 09월 30일(화) 14:00~17:30
- 교육 장소: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및 인원: 하도급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급 이상 130여 명
- 교육 내용: 하도급법·시행령·지침(개정) 및 고시의 주요 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 사건처리절차 등

◎ 제4기 공정거래전문연수 심결·사례과정

- 연수 일시: 2008년 10월 8일(수) ~ 10월 9일(목), 2일간 (비합숙식 전일교육)
- 연수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
- 연수대상 및 인원: 기업체 및 사업지단체의 공정거래 업무 담당 관리자 및 실무책임자 등 총 40여명
- 연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사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결사례, 기업결합 심결사례, 부당내부거래 행위 심결사례, 불공정거래행위 심결사례

◎ 2008년 하반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교육

- 교육 일시: 2008년 10월 21일(화) 14:00~17:00
- 교육 장소: 한국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
- 참석 대상 및 인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계열사 임·직원 200여 명
- 교육 내용: 대규모내부거래공시제도 및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 맞춤형교육

한국전력거래소 (9월 18일), 삼성토탈 (9월 19일), 한진해운 (10월 2일), 비피코리아 (10월 17일), 현대파워텍 (10월 27일), 롯데그룹 (10월 27~28일)